

기획  
논문

## 집합 열광 이후의 집합 의례\*

의례이론으로 본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최규연 \_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박한비 \_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생

### 논문요약

본 연구는 2019년 시작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의례이론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콩 시위의 절정에서 수행된 집합 의례의 산물은 무엇이며, 이는 시위가 억압되는 현재 상황에 무엇을 남겼는가? 뒤르켐과 뒤르켐주의 의례이론은 성숙이분법, 리미널리티, 집합 열광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탈경계적 참여자 포섭과 격동적 집합 정서가 생성하는 사회 변혁적 에너지를 설명한다. 본고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홍콩 시위의 절정기와 시위가 억압된 후속기 동안 진행된 의례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홍콩 시위의 정점이었던 2019년 6월 시위에는 영국/중국과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성숙 대립을 중심으로 강렬한 집합 열광이 산출되었다. 2020년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인들은 열기로 가득 찼던 과거 시위에 대한 기념의 의례를 수행하며, 억압을 피해 세계로 흩어진 이주 홍콩인들은 다원적 거점에서 집합 의례를 지속하고 민주주의 가치라는 성의 세계화를 도모한다. 이 분석에 기반하여, 본고는 집합 열광으로 생성되는 사회 변혁의 에너지가 집합 행동이 억압된 상황에서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으로 의례 참가자 내부에 각인되어 집합 흥분과 무관한 사회 변혁

\* 섬세한 논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 동인으로 영속화되며, 세계 시민사회와의 조우를 통해 성스러운 가치의 세계 종교적 확장으로 진전된다고 주장한다.

■ **주요어:** 송환법 반대 시위, 홍콩, 집합 의례, 뒤르켐주의, 기념의 의례

## 1. 머리말

“말은 그대로 뛰게 될 것이고, 춤은 그대로 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1997년 중국에 홍콩의 주권이 반환되던 때 등소평(鄧小平)이 한 말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상징적인 문장이 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50년 간 그대로 유지할 것과, 홍콩에 독립적인 입법권, 사법권, 최종판결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중국은 홍콩인이 홍콩인을 통치할 것을 보장한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과 자치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고도자치(高度自治)’를 약속했다(중앙일보 2019/07/22).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홍콩인들은 일국양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거리로 나와 홍콩 체제의 독립성 유지와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2년의 애국주의 교육 반대 시위, 2014년의 우산 혁명, 그리고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져 왔다(최경준 2019).

본고는 그 가운데 2019년 송환법 반대로 시작되어 2021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홍콩 민주화 시위(이하 홍콩 시위)에 주목하여,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합 행동과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랜 역사를 가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이 기간 동안 시위의 확장과 억압의 극단을 단기간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9년 시위의 열기가 끓어오르던 때에는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에 비견하는 대중 시위가 나타나고 반중세력이 선거에 승리하는 등 사회운동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시위의 열기는 사그라들고 억압이 강화되면서 시위 주도 세력과 많은 홍콩 시민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2019년에 일어난 대중시위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당시의 뜨거웠던 시위 현장의 열기와 수많은 홍콩인의 단합된 마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현재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해체되고 그 열정은 소멸된 것인가? 본고는 2019년 시위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 현재 홍콩인들이 진행하는 활동을 검토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2019년 동안 진행된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절정기를 가져왔다. 송환법(引渡法)으로 불리는 '2019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하여 홍콩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안에 협정 대상국으로 중국이 새로이 포함된 법안이다(김해인 2019). 이에 홍콩인들은 송환법이 시행되면, 그들이 중국 본토에 강제로 끌려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9일 캐리 램 행정장관이 법안을 홍콩 입법회에 제출한 이후, 3월 15일 첫 거리시위가 시작되었고 많은 시민이 시위에 지속해서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 5월 25일 송환법이 홍콩 입법회에서 친중파의 찬성으로 법제

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6월에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진행되었다. 6월 17일에는 700만 홍콩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민주화를 외쳤으며, 젊은 층의 주도하에 그들의 부모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까지, 전 세대의 참여가 이루어졌다(장정아 2019;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06/17; The Straits Times 2019/06/17). 그 이후, 2019년 9월 4일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발표하였으나,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조사와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홍콩 유권자의 71.2%가 참여한 구의회선거 결과, 전체 479개 의석 중 범민주파가 389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시사IN 2019/12/09).

그러나 2020년 이래로 시위 주도 세력은 분산되며 홍콩 시위는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집합 금지령과 2020년 6월 30일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으로 인한 것이다.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조슈아 웡(Joshua Wong)과 아그네스 차우(Agnes Chow)와 같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2019년 당시 미허가 집회 참여 및 선동, 혹은 조직한 혐의로 수감되었고, 많은 형태의 시위 활동은 불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주’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2020년 많은 이들이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발급 받았고, 그 외 여러 나라로 이주했다(경향신문 2020/12/06; 연합뉴스 2021/05/28). 이에 따라 홍콩 내외부에서 여전히 소규모 집합 행동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홍콩 입법회 내 진보 세력은 약화되었으며, 홍콩 민주화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고의 경험 연구는 뒤르켐의 집합 의례 이론과 사회운동에 대한 후기 뒤르켐주의 이론을 활용한다. 뒤르켐의 이론은 집합 의례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열정과 에너지를 종교 의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화함으로써 단순한 감정과 흥분이 아닌 사회의 도덕성을 생성하는 신성에 대한 숭배와 체험으로 설명한다. 뒤르켐주의 접근에 입각하여 민주화 운동을 분석한 연구로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박선웅의 연구가(1998a: 1998b: 2007) 있다. 본 연구의 접근은 박선웅의 연구에서 정립된 이론들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다. 다만, 그의 연구가 '성공한 시위'로서 역사에 기록된 6월 민주항쟁이 '절정'을 이루던 단계에 집중했다면, 타오르던 열기가 식은 홍콩 시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이론적 설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는 뒤르켐이 제공한 집합 열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 폭넓게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뒤르켐 이론을 원천으로 삼아, 이 글은 홍콩 시위의 절정기와 후속기에서 나타나는 의례 행위를 조명하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의 문화적 동력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뒤르켐 이론이 주목하는 집합 열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멸된 시기에 나타나는 의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확장할 것을 도모한다. 이 작업을 통해 본고는 열광적인 민주화 운동이 그 열정적 참여자에게 남길 것과 시위의 정점 이후에 찾아오는 소강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 1) 뒤르켐과 뒤르켐주의 의례이론

#### (1) 뒤르켐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연구

뒤르켐의 집합 의례에 대한 이론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의 토테미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립되었다(뒤르켐 1992). 뒤르켐은 종교적으로 숭배되는 ‘신’은 집단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형상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에 대한 설명은 ‘사회’에 대한 설명의 연장선에 있다고 역설하였다(Marshall 2002). 이 같은 그의 이론은 성속이분법, 집합 의례의 유형, 집합 열광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속이분법 개념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되었다. 뒤르켐은 종교를 “성스러운 사물들, 즉 구분되고 금지된 사물들과 관련된 믿음들과 의례들의 결합된 체계”로 정의하고, 그 믿음과 의례에 대해 탐구했다(뒤르켐 1992, 81). 이때, 종교적 의례란 성스러운 대상을 숭배하기 위해 신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믿음을 구성하는 의미화의 중심축은 ‘성’과 ‘속’의 대립으로 정의된다. 그에 따르면, 완전하고 이성적인 것을 성으로, 그리고 불순하고 일상적인 것을 속으로 구별하는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도덕적 이상과 지향성에 대한 집합적 의식을 효과적으로 조형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성으로 분류된 대상을 칭송하고 속의 대상은 경멸하는 행동 양식이 전형화되면서 사회적 삶의 도덕적 기준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뒤르켐에 따르면, '성스러운 가치'는 그 자체로는 전혀 성스럽지 않은 어떤 속된 사물에 '부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성의 가치가 대상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택되고 상징화 작업에 의해 임의적으로 대상에 부여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뒤르켐은 성스러움이 '관념'에도 덧붙여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프랑스 혁명에서 '조국', '자유', '이성'이라는 추상적 관념들에 성스러운 가치가 부여된 것을 그 예로 들었다(뒤르켐 1992, 306). 이는 세속화된 의례에서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성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속 분류체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역사적 맥락과 상황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변형 및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합 의례에 대한 정의는 성속이분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뒤르켐은 집합 의례를 성과 속의 상징물이 현시되는 무대이며, 그에 대한 숭배와 경멸이 표출되고 학습되는 현장으로 설명한다. 그는 '긍정적 의례', '부정적 의례', '속죄적 의례'를 구별하는데, 긍정적 의례와 부정적 의례에서 성속이분법의 재현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긍정적 의례(positive rituals)는 구성원들이 성의 가치를 가진 것과 거리를 좁혀 연결 혹은 모사하는 의례로, 제물을 바치거나 신의 형상이나 성스러운 사건을 재현하는 형식을 가진다. 부정적 의례(negative rituals)는 속의 제거 혹은 금지를 통해 성의 오염을 방지하는 의례이다. 여기에는 정화의식이나 금욕적 의식이 포함된다. 뒤르켐은 이러한 집합 의례 활동을 통해 성과 속의 가치가 환기되고 재확인되며, 그 결과 일상에서 혼탁해진 도덕적 감각은 재정비되고 도덕적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의례의 형태인 속죄적 의례(piacular rituals)는 부가적 기능을 가진다. 속죄적 의례는 씨족 성원의 죽음이나 자연재해, 전염병과 같은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의례로, 상실과 슬픔의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비장한 형식을 가진다. 뒤르켐은 속죄 의례 가운데 죽음에 대한 추모 의례는 모든 집합 의례의 시초이며, 생명을 상실한 조상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구현하여 영속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성을 현시한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기능을 가진 속죄 의례의 한 형태가 기념의 의례(commemorative rituals)이다. 뒤르켐은 기념의 의례에서는 과거 영웅의 이야기와 고난 극복의 사건이 재현되며, 여기에 몰입된 참여자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과 믿음, 전통에 열광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공동체는 기념의 의례를 반복하면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구성하고 전승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간직한 집단으로 결속하게 된다(Misztal 2003).

뒤르켐은 종교란 사회적 활동임을 강조하며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집합 의례에서 참가자들의 감정이 서로 공명하며 증폭되는 현상, 즉 ‘집합적 열광’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정신적 삶의 흥분인 믿음은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표현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종교의례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상태 혹은 자신을 초월하는 상태로의 진입은 개인이 홀로 수행하는 종교 활동으로도 달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 의례의 현장에 공현존(co-presence)하며 모여 있는 개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표출하여 집합적 흥분과 감정을 고조시킬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때 집합 의례에서 ‘함께’ 수행하는 노래, 구호, 춤 등은 막강한 흥분제로 작용해 의례 참여자를 성스러운 세계로의 집단적

비등(collective effervescence)을 경험하게 한다(Marshall 2002; Olaveson 2001). 뒤르켐은 그 집합 흥분을 집단 광기나 착란의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존재를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뒤르켐 1992, 300; 312). 따라서 집합 열광의 경험은 성스러운 가치에 대한 숭배를 극대화하며,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다른 구성원과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 (2) 뒤르켐주의 의례 연구

뒤르켐주의 연구는 뒤르켐의 이론을 통해 현대 사회의 세속화된 의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였다(Marshall 2002; Shills and Young 1953; Bellah 1970). 나아가, 후기 뒤르켐주의는 의례가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동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Turner 1969; 터너 2018; St John 2008). 터너는 의례적 상징을 비롯한 문화적 상징들을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회관계의 ‘과정’에서 태어나며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터너 2018, 69-70). 그는 주기적 반복을 통해 고정된 형식을 가지는 의례에서만 아니라, 제도화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상황에서 특정한 의례화의 전략을 통해서 집합 의례적 행동, 즉 동일한 구호와 몸짓, 춤과 노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집합 흥분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같은 비제도화된 집합 의례에서는 사회질서의 재확립이 아닌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는 이 같은 터너의 이론에

서 제시된 개념이다. 터너는 집합 의례가 가진 구조 변혁성을 의례의 3단계, 즉 '분리 단계', '주변부 단계' 그리고 '재통합 단계'로 설명한다. 첫 단계인 분리 단계에서 의례에 참여한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정된 사회 구조나 문화적 조건에서 '떼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음 단계인 주변부 단계에서는 이 떨어져 나온 모든 것들은 반구조 상태(anti-structure)가 된다. 즉, 이전까지 당연히 여기던 지위, 역할, 상식이 그 자명성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터너는 이러한 상태를 문턱에서 있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리미널리티(liminality)'로 정의한다. 또한, 해당 의례가 '지위 전복'을 포함할 경우, 리미널리티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문턱을 넘어, 모두 평등하고 미조직·미분화된 유대인 '커뮤니타스(communitas)'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의례 참여자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의례의 집합적 열광에 융합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재통합 단계에서는 커뮤니타스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세속적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례 시작 이전과 동일하지만, 그 내면은 '의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태'로 속세에 복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뒤르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민주화 운동을 분석한 예시가 박선웅(2007; 1998a)의 한국 6월 항쟁 연구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시위에서 폭력적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이들 간 결속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를 탐색하였다. 성숙이분법에 있어 민주/독재 이항대립의 상징체계가 확인되며, 집합적 열광을 가져오는 집합 의례 행동으로는 애국가 제창, 만세 삼창, 차량 경적, 거리토론, 투석전 등이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리미널리티는 시위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 권력의 압박이 해체되는 것에서 확인되며, 커뮤니티의 형성은 시위 참여자들이 상이한 입장과 지위를 배제하고 민주화의 가치를 요구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연대한 것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의례이론적 분석은 6월 항쟁이 집합 의례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세밀하게 밝혀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적 전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문화적 설명을 도출했을 뿐 아니라, 뒤르켐주의 의례 이론에 입각하여 사회운동의 동학을 조명하는 짜임새 있는 이론틀을 제공하였다.

본고는 이 같은 접근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홍콩 시위에서 성숙이분법 체계를 분석하고,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는 집합 의례적 행동과 그 정서적 결과를 해석하며,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의 발현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홍콩 사례에서 나타나는 집합 열광 이후의 후속기에 있어서는 뒤르켐과 뒤르켐주의 이론에 대한 심화된 해석을 통해 의례 이론이 제시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의 범주를 확장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분석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 관한 선행 연구는 2019년 시위의 배경과 특징을 밝혀냈다. 장정아(2019)는 홍콩 시민들이 과거와 달리 다소 과격하고 격렬한 성향을 띠는 이유를 탐색하며, 2019년 시위가 2014년 우산 혁명이 실패하면서 만들어진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은 그들의 일상이 정치화되고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자각에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절

박한 감정이 전면에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윤영도(2019)는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던 홍콩 사회에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만연했음을 지적하고 홍콩 시위를 저항적 정동정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손 인주의 연구(2020)는 시위의 근본적 원인을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의 미비와 중국 공산당의 억압적 대응에서 찾는다.

이 외의 연구는 중국 정치를 중심으로 홍콩 시위를 조명한다. 유영수(2019)는 홍콩인에 대해 강경 대응을 거듭하는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홍콩인들의 중국에 대한 소속감의 저조, 일국양제 시행에 대한 의구심, 홍콩과 본토의 경제 통합에 대한 반감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윤태희(2021)의 연구는 중국 당국이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홍콩 반환 시 중국이 제시한 원칙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최경준(2019)는 일국양제의 문제는 홍콩과 중국 간 관계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접근, 동북아 국제 정세, 그리고 중국 내부의 통합과 같은 복잡한 중국 정치와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선행연구는 홍콩 시위의 거시적 맥락을 폭넓게 밝혀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2020년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백원담 외, 2021). 물론 이는 연구 시기 상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2019년 시위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열광하던 상황만으로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2020년 이후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심화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는 언론 보도자료, 전문잡지, 온라인 미디어,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홍콩 시위 참여자의 집합 의례 활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발간된 시기는 2003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이다. 자료의 종류별로 언론 보도는 150건 이상, 전문잡지는 9건, 다큐멘터리 및 TV 프로그램 영상은 5건이 수집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은 시위단의 공식 계정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홍콩의 근대 정치사와 운동정치의 역사에 대한 문헌이 참고자료로 수집되었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의레이론의 개념에 따른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신문기사와 더불어 시위 현장을 담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시위에서 나타난 의례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이후 홍콩에 남은 홍콩인과 홍콩을 떠난 홍콩인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주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과 그들이 게시하는 온라인상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자료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자료 간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특정 행동 유형을 유의미한 집합 의례적 활동으로 분류할 때 여러 원천의 자료를 활용하여 행위 발생의 진위 여부와 전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합 의례의 함의에 대한 분석을 심화할 때에는 뒤르켐과 뒤르켐주의 학자의 논의를 원천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 해석의 타당성과 경험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1> 2019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연대표

시기	사건
2019년 2월	송환법 개정안 논의 시작.
2019년 3월 31일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 시작.
2019년 6월 9일	약 100만 명이 시위 참여.
2019년 6월 12일	시위대가 입법회 포위 /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 고무탄 발사 / 송환법 개정안 법안 심사 연기.
2019년 6월 15일	송환법 개정안 처리 무기한 보류 / 홍콩인 남성 량링제가 경찰과 대치 도중 투신자살.
2019년 6월 16일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이 시위 참여.
2019년 6월 29일	홍콩 교육대생 워샤오옌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2019년 7월 2일	시위대가 의회 점거.
2019년 7월 21일	43만 명이 시위 참여. / '백색 테러' 발생. 위안랑역에서 흰 옷차림을 한 이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
2019년 8월 11일	170만 명이 시위 참여.
2019년 8월 12일	시위대 5000명의 공항 점거 시위.
2019년 9월 4일	송환법 철회.
2019년 10월 04일	긴급법의 일환으로 복면금지법 제정.
2019년 11월 24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승리.
2020년 1월 ~	시위의 장기화. 시위대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 시위.
2020년 6월 30일	홍콩 보안법 제정 및 발효.

#### 4. 2019년 홍콩 시위의 집합 의례적 특징 분석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던 2019년 이때 어떤 의례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는가? 당시 시위에서는 뚜렷한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 그리고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를 형성한 시민들의 집합적 열광이 나타났다. 그 집합 의례의 힘은 2019년을 관통하여

홍콩 시위의 열광을 지속하고 '송환법 반대'에서 '홍콩 민주화'로 의제의 확장을 가져왔다.

### 1)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

2019년 홍콩 시위에서 '민주화된 홍콩'의 성스러움을 구축하는 성과 속의 이분법적 분류체계가 뚜렷이 나타났다(〈표 2〉 참조). 이 분류 가운데, '국가'에 대한 성과 속의 구별은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며, 이후로 시위의 향방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홍콩 시위의 성속 이분법은 이 '국가'에 대한 성과 속의 대립과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국기'를 둘러싼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2019년 홍콩 시위의 성속 분류체계

성	속
민주화된 홍콩	
홍콩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해준 영국	일국양제의 약속을 어긴 사회주의 중국
민주화를 외치는 반환둥이 젊은 세대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램을 비롯한 친중인사
평화와 비폭력	폭력
민주주의	사회주의

#### (1) 성스러운 식민지배국 영국과 속된 나의 조국 중국

홍콩 시위에서 시민들은 명백하게 영국에 성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에 속의 지위를 부여한다. '홍콩인들의 조국'인 중국이 '속'의 지위에 있고, 과

거 '홍콩을 식민지배했던 국가'인 영국이 '성'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 같은 성숙분류는 2019년 시위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성립에서 홍콩 반환 이전까지 홍콩을 둘러싼 정치사의 흐름에서 형성된 것이다.

홍콩인이 중국에 '속'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 첫 번째 기점은 1967년 반영 항쟁이었다. 홍콩인들은 당시 식민 종주국인 영국에 대한 반감으로 '67 폭동'을 일으켰으나 당시 시위에 나섰던 홍콩 좌파 세력이 중국 본토에서 진행 중이었던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아 집단적 폭력 방식을 취하면서, 시위를 지켜보았던 홍콩인들에게 '폭력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을 유발했다(장정아 2003; 2008; 2016; 이종화 2018). 다음으로,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서 시위대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되는 것은 홍콩인들로 하여금 홍콩의 중국 반환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하였다. 홍콩에서는 지금까지도 매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면서 '나의 조국 동포'가 추구한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 그리고 '그런 민초들을 짓밟은 나의 조국'을 기억한다(KBS News 2021/06/04).

이와 같이, 사회주의 중국이 가지는 '속'의 지위가 심화되면서 식민지배국 영국이 가지는 '속'의 지위는 망각된다. 즉 비교적 더 오염된 중국은 남고 비교적 덜 오염된 영국은 '속'의 지위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비교우위는 영국을 '성'의 지위로 전환시키기에 이른다. 천안문 민주화 운동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 영국은 홍콩을 반환하기 직전, 홍콩인들에게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자유를 허용해 주었는데 이에 반감을 품은 중국은 반환 이후 이 자유를 모두 폐지해 버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영국은 우리에게 민주적 자유를 보장해 주었는데, 중국이 이 자유를 다 빼앗아버렸다’라는 (왜곡된) 집단 기억이 형성되었다(이종화 2018; 장정아 2014; 2016). 이때 구축된 이분법적 분류체계는 홍콩 반환 이후 발생한 대륙인과 홍콩인 간의 갈등으로 고착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에 대한 강요, 2014년의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도 채택, 그리고 2019년 송환법 도입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들과 맞물려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극명하게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홍콩에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영국/중국 이분법은 뒤르켐이 설명한 ‘성스러움’의 의미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성숙 분류는 대상의 속성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선택에 따라 ‘부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대상이 정말로 성스럽기 때문에 ‘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성스러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기약 없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지속해서 받았다면 자유와 권리에 대한 홍콩인의 투쟁은 영국을 ‘속’으로 규정하며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억압의 주체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면서 영국을 ‘속’에서 ‘성’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영국의 속성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개별 홍콩인의 입장은 여러 갈래로 갈리며, 영국 대외정책의 이중성에 주목하는 이들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시위에서는 영국에 ‘성’의 지위를 부여하는 의례가 분명하게 사용된다.

(2) 깃발 싸움으로 드러난 성과 속의 이항 대립

뒤르켐은 “그의 군기를 방어하다가 쓰러진 군인은 그가 천 조각을 위해 쓰러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뒤르켐 1992, 325)”라고 서술하며 국기를 ‘성스러운 의미’가 부착된 토템의 대표 사례라고 보았다. 홍콩 시위에서는 미국의 성조기, 중국의 오성홍기, 영국의 유니언잭 등 다양한 국기들이 등장했다(뉴스1 2019/08/25). 그 가운데 성의 지위에 있는 영국의 유니언잭, 그리고 속의 지위에 있는 중국의 오성홍기를 둘러싼 상징적 행동들은 성과 속의 이항 대립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먼저, 영국 유니언잭의 경우,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만세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흔들었듯, 자랑스럽게 흔들어지고, 영국의 상징물로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뉴스1 2019/08/25). 무리지어 유니언잭이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니언잭을 손에 쥔 채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Queen」을 부르며 그들이 영국에 성의 지위를 부여하였음을 한 층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위대 역시 있었다(Guardian News 2019/09/15). 국기가 해당 국가를 가장 잘 상징하는 시각적 표상이라면, 국가는 그 국가를 가장 잘 상징하는 청각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표상이 만나, 2019년의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영국은 성의 지위를 지닌 국가로 가시화되어 드러난 것이다.

반면, 중국 국기는 시위대의 발에 짓밟히고, 국기계양대에 걸려 있던 것을 일부러 끌어내려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 과격한 시위자에 의해 불타는 수모를 겪기까지 하였다(뉴스1 2019/08/25; SBS뉴스 2019/09/01). 특히, 오성홍기에 대한 홍콩 시위대의 반감은 2019년 7월 1

일에 있었던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행사에서 보다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홍콩에서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성홍기 게양식이 예정되어 있었다(주간조선 2019/07/05). 홍콩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새벽부터 입법회 앞 도로 위에 모여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오성홍기는 게양되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일부 과격파 시위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날 저녁 9시에 입법회 건물에 난입하여 본회의장 단상에 ‘영국령 홍콩기’를 내걸었다.

국기 싸움은 지극히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이다. ‘중국’을 모욕하기 위해 ‘영국’을 찬양하는 행위는 ‘속’을 거부하는 부정적 의례와 ‘성’을 추앙하는 긍정적 의례가 혼합된다는 점에서 중층적이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제는 성숙 대립을 축으로 정렬된다. 이 같은 의례 행위는 성숙이분법의 힘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선과 악’, ‘미와 추’, ‘명과 암’과 같이 중간 단계 없이 양극단의 가치로만 구분하는 이분법은 그 어떤 분류 체계보다 극명하게 무엇이 추종해야 할 가치인지 천명하며 무엇보다 자극적으로 그에 대한 전격적 수용과 헌신적 몰입을 가져온다. 전술하였듯이, 홍콩인에게 영국은 식민종주국이라는 점에서 ‘속’이자 (제한되게나마) 자유를 경험하게 해준 체제라는 점에서 ‘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혼합은 이분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속’의 내용은 제거되고 ‘성’만이 남는다. 이와 같이, 경험적 현실은 집합 의례를 위해 재단되고 그 결과 구축된 성숙이분적 의미화체계는 집합 열광의 단초를 마련한다.

### (3) 영국/중국 이분법의 심층성

영국/중국 이분법은 궁극적으로 ‘홍콩의 민주화’라는 성스러운 가치의 의미화로 연결되는 심층 구조를 가진다. 이는 홍콩에서 과거 식민종주국인 영국에 ‘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민족주의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 충돌은 단순한 사상적 대립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충돌이기도 하다. 1967년 청년 시절 반영 시위인 67폭동에 참여했던 홍콩 노인은 송환법 반대 시위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 홍콩 사람들은 참 기구해. 나는 어릴 때 영국 물러가라고 그리 싸웠는데, 내 손주가 유니언잭(영국 국기)을 들고 설칠 줄은 몰랐지. … 그 때는 (1967년에는) 내가 손주 나이였지. 지금이랑 반대였어. 많은 홍콩 사람들은 영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조국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생각했지.”(시사HN 2020/07/17).

이 같은 증언은 영국/중국 성숙 분류의 근저에 자리한 심층 구조를 암시한다. 먼저, 영국에 성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서 적용된 ‘비교우위에 따른 성숙 분류’는 홍콩인의 비극적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홍콩은 과거에는 중국의 작은 도시였다가 1842년 난징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되었고 (1941년에서 1945년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1997년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영국의 식민지로 지냈고, 이후로 중국에 반환되어 지금까지 ‘특별행정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장정아 2003). 즉, 소유주는 계속 바뀌었지만

만, 홍콩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였으며, 근대사에서 온전한 자치권리를 누린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조국’인 중국 역시 홍콩의 의지에 따라 작동하는 국가 체제가 되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홍콩에게 ‘국가’는 그들을 위한 체제 단위였던 적이 없다. 많은 홍콩 시민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나 ‘영국인’이 아닌 ‘홍콩인(Hongkonger)’으로 정의한다(최경준 2019). 그들은 홍콩인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며 홍콩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다. 따라서 영국 국기를 들거나 미국 국기를 든다 하더라도 홍콩인들은 정체성의 모순에 당면하지 않는다. 국가 없는 시민인 홍콩인들은 중국이라는 ‘속’을 모욕하기 위해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을 들어도 영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 집합적 정체성의 내용은 다양하고 변화해 가지만, 2019년 홍콩 시위의 현장에서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였다. 표현의 자유, 공정한 선거제도, 독립적 사법권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가 홍콩인이라 지역 기반의 집단 정체성을 오롯이 채웠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 시위의 성숙 분류 체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대상은 ‘민주화된 홍콩’이다 (<표 2> 참고).

이 같은 해석은 홍콩 시위의 성숙이분법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영국/중국을 가르는 성숙 분류는 ‘조국(중국)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함축한다. 홍콩인에게 영국 식민지배하의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허용되었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민족주의적 헌신보다 우선하는 강렬한 ‘성’의 지위를 가진다. 즉, 영국/중국 성숙 대립은 민족주의를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2) 2019년 6월 홍콩 시위의 정점에서 나타난 집합적 열광

### (1) 연대한 홍콩인들의 집합적 열광

2019년 6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정점에 달했다. 6월 9일에는 100만 명이 거리에 나왔고, 한 주 뒤인 6월 16일에는 200만 명이 거리 시위에 참여하였다. 200만 명이 거리에 나온 6월 16일 하루 전날인 6월 15일,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램은 송환법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거 거리에 나와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할 것’과 ‘람 장관이 사임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6월 9일과 16일의 시위 참가자 수는 홍콩 인구가 약 740만 명임을 고려할 때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각각 홍콩 역사상 최대 시위 규모를 갱신한 수치였다.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진 홍콩 중심가는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이들의 행진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YTN뉴스 2019/12/27).

200만 홍콩인들이 거리에 나온 2019년 6월 16일의 홍콩 시위는 집합 열광을 가져오는 의례적 요소들이 충실하게 재현되었다. 시민들은 일제히 거리에 나와 리듬에 맞추어 박수를 치며 “송환법을 철폐하라”, “캐리 램, 창피한줄 알아라(Carrie Lam, Shame on you)”와 같은 구호를 일제히 외쳤고 “반송환(反送還)”, “우리를 죽이는 것을 멈춰라(Stop killing us)”, “학생이다. 폭동이 아니다(學生/沒有暴動)” 등의 문구가 쓰여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9/06/17; The Straits Times 2019/06/17).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구호를 따라 외쳤고, 그들은 다 같이 노래를 열창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부터 중장년층, 그리고 일부 노년층까지 다양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역시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참여해 전 세대, 전 집단 간의 연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6월 16일의 시위가 비단 사회 변동적 목적만이 아닌, '속죄 의례'적인 성격 또한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캐리 램 행정장관이 송환법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던 6월 15일, 35세 홍콩인 남성 량링제(Leung Ling-kit)가 시위를 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건물에서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6월 16일,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와 함께 량링제를 추모하는 의례가 동시에 일어났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9/06/17). 거리에는 그의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찾아가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며 량링제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더불어, 대부분의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들은 량링제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을 가진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행진하는 시민들 중에는 가슴에 하얀 리본을 달거나 흰 국화를 든 채 행진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다. 이날 이후, 검은 옷은 홍콩 시위대의 상징이 되었다(KBS 뉴스 2019/08/19).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6월 16일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현실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 변동적 목표를 지닌 집합 의례, 그리고 한 편으로는 시위의 열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한 명의 홍콩인 동지'를 추모하는 속죄 의례 형태의 의례가 중첩적으로 일어나며, 사람들의 감

정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격화되고,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의 적’을 두고 있고, ‘공동의 친구’를 잃은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했다. 그렇게 그들은 리미널리티를 넘을 수 있었고, 기존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시위를 나선 홍콩인’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었다. 세대와 지위를 아우르는 공감의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들은 송환법이라는 자신과 다른 홍콩인들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강한 불안을 느꼈고, 시위 중에 경찰의 무력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을 볼 때 강력한 마음의 격동을 느꼈다고 증언한다. ‘홍콩인 간의 공감’의 감정은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 그리고 다양한 상징 등의 재생산, 그리고 집합적 열광과 함께 했다. 아래 기재된 한 시위자의 경험에 대한 서술은 홍콩인들이 시위 현장에서 얻게 된 연대 의식과 공감 그리고 그들의 결속을 확인해준다.

“원래 정치나 사회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6월12일 애드미럴티 역에 나갔다. (중략) 앞에서 있던 시위 참가자에게 최루탄이 날아왔다. 그때는 헬멧과 천 마스크밖에 없었다. (중략) 그날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다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6월12일 이후 매주 주말 시위에 참여했다”(시사IN 2019/09/02).

## (2) 열광의 지속: 발전과 심화

6월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시민들의 집합적 열광은 식지 않은 채 2019년 내내 지속되었다. 시민들은 한 번 집합적 열광을 느낀 6월 이후에도 계

〈표 3〉 송환법 철폐 이후 홍콩 시위대의 요구

홍콩 시위대의 다섯 가지 요구(5 Demands Not 1 less)	
1	송환법 철폐할 것
2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을 철폐할 것
3	현재까지 시위 중 구속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전원 석방할 것
4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한 독립된 조사처를 만들 것
5	캐리람을 몰아내고 홍콩인들이 직선제로 새로운 행정장관을 뽑을 수 있게 해줄 것

속해서 무리지어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 4일, 캐리 램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시민들의 집합적 열광은 홍콩 정부의 결정을 바꾸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200만 명이 시위에 나섰던 6월 16일 이후, 한번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가 포함된 집합적 열광을 겪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홍콩인들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것이 바뀐’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터너 2018). 그들의 민주화에 대한 승배는 송환법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6월에 사용하던 “송환법을 철폐하라(反送還)”라는 시위 구호는 8월 이후 “광복 홍콩, 시대 혁명(Free Hongkong, Revolution Now)”, “조국을 해방하라” 등 더 큰 목표를 외치는 구호로 바뀌었다(시사IN 2019/09/02). 그들은 홍콩 민주화의 성스러움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례를 지속한 것이다(〈표 3〉 참고).

## 5. 집합 열광 이후의 집합 의례

### 1) 남아 있는 홍콩인들의 집합 의례

#### (1) 집합 의례의 억압

홍콩 정부의 보안법과 집합금지령의 시행은 2019년 집합적 열광을 가져왔던 의례적 기제와 행동을 통제하는 데 집중되었다. 2019년 당시 홍콩의 벽을 뚫어지게 뚫었던 홍콩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어 넣은 포스트잇들은 불법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저 백지를 붙이는 것조차도 보안법 위반으로 규정되었다. 2019년 홍콩에서 시민들이 부르짖던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와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노래 역시 금지되었다. 홍콩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홍콩인들의 ‘긍정적 상징들’이 사회의 ‘금기’로 규정되며 부정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시민들의 집회를 금지했다. 뒤르켐의 이론에서 함께 있는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흥분감에 휩싸일 수 있는 ‘집합적 열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 있다면, 일단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뒤르켐 1992). 공현존의 회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집합 의례를 통한 사회 변혁적 에너지의 재창출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의례에 대한 억압’의 결과는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은 2021년 6월의 홍콩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매년 6월 4일은 홍콩에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는 시위를 하는 날이었고, 2019년 6월 12일은 시위대가 송환법을 심의하려던 입법회를 포위하고 경찰과 충돌한 날이었

으며, 6월 19일은 홍콩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날이었다. 이렇듯 기념할 의례가 많은 달인 6월에 홍콩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이 집중되었다(연합뉴스 2021/06/13). 먼저, 천안문 민주화 운동 기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 부주석이 기념일 당일 오전에 체포되었다(서울신문, 2021.06.05; 연합뉴스 2020/06/04). 더불어, 6월 12일에 송환법 반대 2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이를 SNS에 게시한 시민 두 명은 기념일 전날인 11일에 체포되었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6/11). 홍콩 정부는 이같이 시위 주도 세력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시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6월 4일 당일에는 빅토리아 파크 자체를 봉쇄하였고, 4일과 12일에는 코즈웨이베이와 몽콕과 같은 도심에 수천여 명의 경찰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사전 대처와 시민들의 보안법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으로, 2020년 6월에는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산발적으로 따로 모여 작은 규모로 촛불을 켜고 시위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과거에 비하면 현격히 작은 규모에 그쳤고, 이마저도 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연합뉴스 2021/06/13).

## (2) 홍콩에서의 기념의 의례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말살되지 않는 의례가 수행되고 있다. ‘기념의 의례’가 그것이다(뒤르켐 1992). 홍콩인들은 과거에 시민들이 모여 집합적으로 열광했던 기억을 조용히 소환하는 의례를 수행하고 있다. 그 예시는 경찰의 압박이 강력했던 2021년 6월 12

일 송환법 반대 시위 2주년 기념 시위에서 찾을 수 있다. 주도 세력이 체포되고 대규모 시위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던 당시 홍콩 거리 한 편에서는 ‘침묵하는 시위’가 벌어졌다(연합뉴스 2021/06/13). 시민들은 2019년 시위의 열기가 뜨거웠던 바로 그 거리에 나와 말없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 이 날 코즈웨이베이의 거리에서 침묵한 채 서 있던 한 남성은 자신이 “2년 전 일어난 일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며 “너무 많은 경찰관이 서 있어 안전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와 그날을 조용히 기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라고 증언한다.

이를 통해 홍콩 정부의 억압 아래 열광하기를 저지당한 이들은 열광의 기억을 그들의 내면으로 다시 불러오며 이 기억을 환기하는 의례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뒤르켐의 설명에 따르면, 기념의 의례는 본래 공동체의 영웅과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연극적 재현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감적 호응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상에 심취하는 의례이다(뒤르켐 1992). 2021년 홍콩 현지에서 거행된 기념의 의례는 연행적이고 표출적인 요소는 부재한 상태로 개인이 스스로의 내면에 몰입해 기억의 조각을 형상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각인시키는 형식을 가진다. 뒤르켐은 종교의 근원이 사회라고 보았지만, 집단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힘이 개별화되어 형성되는 ‘개인적 숭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와 같이, 집합적 열광을 통해 한번 사회와 연대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그 집단적 에너지를 개별화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홍콩인들이 수행하는 개인적인 의례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기념의 의례가 속죄적 의례의 하나인 만큼, 이 기념의 의례는 과거 홍콩을 뒤덮었던 열광을 기억하

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는 대비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통해 하는 의례의 성격을 가진다.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를 곱씹는 홍콩인들의 기념의 의례는 열기로 가득 찬 과거와 감시의 시선에 붙잡힌 현재 사이의 극명한 간극으로 인해 더욱 절실하고 비장한 색채를 띠게 된다.

이 때 각각의 홍콩인들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개별 사건과 경험의 순간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반구조 상태(anti-structure)에 대한 체험이다(터너 2018). 그들은 2019년 시위에서 ‘홍콩의 민주화’라는 요원한 목표에 대해 “공통된 열정에 자극된 회중에 둘러싸여 ... (그들) 자신의 힘으로만 한정되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행위들과 감정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당시의 집합 흥분을 재현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들어 올려졌던 모든 높이”가 무엇이었는지 반추하는 것이다(뒤르켐 1992, 300). 따라서 홍콩에서의 기념의 의례는 고요하고 개인화되어 있으나 리미널리티를 경험하게 된다. 터너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하러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문턱에 진입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는데, 이는 “시간(물리)을 벗어났다가 다시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장소와 순간을 재현하기 때문”이다(터너 2018, 257). 그들은 자발적으로 ‘문턱’에 놓이기를 택한 것이다. 기념 의례의 수행자는 홍콩의 민주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현실적 예측이나 기대를 가지고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완고한 현실의 벽이 무너지는 상태, 즉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까닭에 ‘홍콩의 민주화’를 계속해서 숭배하는 순례자인 것이다. 그들이 기억하는 성스러운 세계의 본질은 다음의 뒤르켐

의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울부짖음, 몸짓, 태도들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는 일상적으로 살아 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세계로, 그를 사로잡으며 그를 변모시키는 강렬한 힘으로 가득 찬 환경 속으로 정말로 옮겨진 것처럼 느낀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특히 몇 주일 동안이나 매일 반복될 때, 어떻게 인간은 이질적이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는 그가 무미건조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이끌어 오던 세계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광란의 정도까지 흥분시키는 특별한 힘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전자는 속된 세계이고, 후자는 성스러운 사물들의 세계이다(뒤르켐 1992, 312).

홍콩인들의 기념의 의례는 과거의 성스러운 세계를 순례하는 의례인 동시에 사회의 집합 기억을 재생산하는 의례이다(Misztal 2003). 기념의 의례를 통해 이들은 홍콩인 공동의 경험을 공동의 기억으로 축적해 간다. 따라서 홍콩인들이 기념의 의례를 통해 내면화하는 실재는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이라 부를 수 있다. 기념의 의례를 통해 홍콩인들은 ‘민주화를 외친 홍콩인’이라는 ‘성’을 내면화하고 기억 구조 속에 영속화하는 것이다.

그 기억의 의례는 성스러움을 몸에 새겨 넣는 행위로도 나타난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문신 도안은 2014년 우산혁명을 상징하는 우산 모양과 홍콩의 상징 꽃인 자형화로, 이는 기억의 연대를 송환법 반대 시위 이전의 민주화 운동

역사로 연장한 것이다. 이 외에도, “香港(홍콩)”을 한자로 새겨 넣거나 “Made in Hongkong(메이드 인 홍콩)”이라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자 문신도 홍콩인의 몸에 새겨졌다(연합뉴스 2019/08/28; 한겨레 21 2021/02/12).

개인의 몸에 직접 새기는 문신은 그 개인의 신체에 성스러운 ‘상징’을 부착하는 행위이다. 뒤르켐은 원시 부족원들이 “그들의 문장(紋章)”인 토템을 “그들의 살 속에 새겨 넣어 그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행위가 가지는 상징성을 강조하였다(뒤르켐 1992, 173). 이와 같이 민주화 운동 기념 문신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생성된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이 홍콩인들의 몸에 부착되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형상화한다. 이는 단순한 회상의 기제가 아니다. 뒤르켐에 따르면, 종교는 인간은 몸뿐 아니라 그들의 ‘힘’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다. 신이 자신과 함께한다고 믿을 때, 인간은 기존보다 증대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콩인들의 민주화 기념 문신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성스러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회의 문이 열릴 때마다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도록 하는 힘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집합 열광의 산출물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열광적인 집합 의례를 통해 생성되는 사회 변혁의 에너지는 집합 행동이 억제되거나 부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으로 의례 참가자 내부에 각인되며, 기념의 의례를 통해 개인의 내면에 영속화된 형태로 뿌리내린다. 그리고 이는 집합 흥분의 유무와 무관한 사회 변혁의 동인

으로 존재하게 된다.

## 2) 흩어진 홍콩인들의 집합 의례

### (1) 두 공간에 흩어진 성과 홍콩인의 분열

2020년 보안법 도입 이래로 수많은 홍콩인들은 홍콩을 떠나기를 택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그들의 이주 동기는 분명 매우 복잡적이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1/26). 그러나 홍콩인의 이주 양상은 홍콩 시위 속 성숙이분법의 연장선에서 설명된다. 이주 홍콩인들에게 공통된 이민의 동기는 홍콩 정부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제한과 임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다. 2020년 6월 영국으로 이주한 한 여성은 보안법 아래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체포되고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을 일국양제가 무너지고 법적인 보호 없이 “사람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1/26). 이는 홍콩인들의 성숙이분법에 따르면 가장 속스러운 세계 안으로 끌려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오염되고 속스러운 공간을 떠나는 것은 정화의례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홍콩인들이 사용한 ‘공간에 대한 성숙 분류’는 이주의 목적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홍콩인들은 ‘성’으로 분류된 대상에 ‘민주화가 구현되어야 할 홍콩’과 함께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졌던 영국’을 포함하였다. 홍콩인들이 보안법을 피해 이주해 가는 국가는 대부분 당시 시위에서 ‘성’의 의미가 부여되었던 곳으로 특히 많은 이

들은 ‘성스러운 영국’을 목적지로 선택하였다. 물론 이는 홍콩 보안법을 비판적으로 규정한 영국 정부가 특별비자 발급을 허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을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들의 설명은 홍콩 시위의 성숙 분류에 비추어 볼 때 ‘성’에 가까이 가는 의례적 태도로 이해된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1/26). 그들에게 영국은 민주화가 구현되지 못한 홍콩에 대한 ‘대안적 성의 공간’으로 해석되며 그곳으로의 진입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상충되지 않는 선택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홍콩의 상황은 ‘성’의 의미가 복수의 공간에 부여되는 것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의 가치를 가진 공간이 홍콩과 ‘그 외의 공간’에 흩어져 존재하는 상황에서, 홍콩인에게 굳이 그들의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공간이 홍콩일 필요성’은 희석된다고 볼 수 있다. ‘성’이 한 공간에 집약되어 있었다면 시민들은 해당 공간에 대한 애착 그리고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집합 행동을 수행해 나갔을 것이며,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스러움’이 여러 공간에 분산된 것이 홍콩인의 분열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홍콩 민주화에 대한 집합 열광의 에너지가 홍콩이라는 공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집합 의례는 완전히 소멸되었을 수 있다. ‘성’의 가치가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 홍콩인들에게는 ‘미약한 탈출구’이자 ‘대안’을 허용했고, 그로 인해 홍콩인들이 본토에 메이지 않고 이주를 통해 집합 의례의 생명력을 복수의 공간으로 확장해 갈 수 있었다.

(2) 세계의 '성화(聖化)': 홍콩 민주주의 성스러움의 세계화와 세계의 성화

홍콩인의 이주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다. '집합 열광의 에너지'를 간직한 홍콩인의 이주는 성스러움의 세계적 확산을 가져왔다. 세계로 흩어진 이주 홍콩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집합 의례를 수행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각지의 의례를 하나로 연결하고, 세계 시민을 새로운 의례 참여자로 포섭한다. 이 같은 활동은 아직 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세계로 확대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합 의례의 모습과 함의를 파악하게 해준다.

세계로 흩어진 이주 홍콩인들은 다원적 거점에서 각각 집합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경향신문 2020/08/15; DW Documentary 2021/03/03). 그 집합 의례의 생명력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2주년 기념 시위가 이루어진 2021년 6월 12일에 드러났다. 홍콩 내부에서는 주도 세력의 체포와 경찰의 억압으로 소규모 시위만이 이루어진 반면, 해외에서는 런던, 뉴욕, 베를린, 도쿄, 시드니 등 최소 48개의 도시에서 홍콩을 지지하는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6/12; 연합뉴스 2021/06/13). 이 시위들에서는 2019년 홍콩 시위의 집합 의례적 상징들이 다시 사용되었으며, 의례적 기제들인 노래와 구호, 포식 등이 다시 나타났다. 이날, 미국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홍콩인 시위자는 연설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은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홍콩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라고 말했다(HKDC-Hong Kong Democracy Council 공식 계정 2021/06/13). 이는 그들의 '홍콩 민주화'에 대한 승배가 지속되며 그 집합 의례의 열기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주 홍콩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기 다른 공간과 시간에 수행되는 집합 의례를 한 공간으로 끌고 온다. 그 예시가 '2021 HONG KONG CHARTER' 사이트이다. 이는 영국으로 망명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션 로와 각각 호주와 미국으로 이주한 테드 후이, 식스투스 바지오령 등 8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3월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2021 홍콩헌장'을 발표하는 등 공동 행동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대 활동을 통해 집합 의례의 동시성은 가상공간에서 간헐적으로 구현되며, 의례 참여자들은 거리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재현되는 다른 공간에서의 시위를 보면서 감정적 공명을 경험하며 개인화된 정서적 고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원적 공간에서의 의례가 하나의 '집합 의례'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아가 집합 의례의 공간이 세계화되면서 '성'의 확장이 핵심적 의례화 전략으로 자리 잡는다. 세계 각지에서 홍콩 시위가 이루어지면서 집합 의례의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콩인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숭배하는 세계시민을 동원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물론 홍콩인들은 시위가 처음 시작되었던 2019년에도 꾸준히 국제 사회의 관심을 얻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왔다(장정아 2019). 그러나 홍콩인들이 세계 각지로 이주하면서 이러한 활동은 더 직접적 포섭 활동으로 진화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의례화의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주 홍콩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성스러움'의 의미를 전달할 때 이는 불특정 대상을 향한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대면 가능한 시민과 조직들을 향하게 된다. 홍콩 민주화의 성을 전달받을 존재는 단순한 '국가'가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적 인간'인 세계인들이다. 이들

의 만남은 사적 관계의 구축을 넘어, 홍콩에 요구되는 민주적 가치의 성스러움에 대한 숭배를 위한 만남을 형성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것에 대한 순수하고 고결한 연대를 이루게 된다. 2021 HONG KONG CHARTER 사이트의 서명란에는 홍콩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많은 세계 시민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네덜란드, 태국 등 세계 각국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세계 시민사회의 동원은 홍콩인의 집합 의례를 질적 변화를 촉진한다. 세계 시민이 ‘홍콩’이라는 그들에게는 이질적인 공간을 위해서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특정 장소의 해방’이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확산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즉 ‘홍콩의 민주화’는 ‘세계 민주화’의 하나로 정의되어야 세계시민의 참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 홍콩인의 집합 의례에서는 세계를 성의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포섭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세계의 성화가 시도되는 것이다. ‘성’의 가치를 단일한, 혹은 작은 공간에 한정해 두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세계로 확장해 나가 궁극적 ‘성’의 가치를 지닌 민주화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뒤르켐(1992)은 거대 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자연스럽게 세계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적 삶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서술하며 범부족적으로 존재하는 신에 대해 설명한다(ibid. 586). 이주 홍콩인들이 ‘홍콩 민주화’의 성스러움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홍콩인이 숭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홍콩에서 구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억

압되는 세계 모든 곳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화의 성스러움은 세계 모든 곳에서 숭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각각의 '성'을 부여한 세계의 시민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들 모두의 궁극적 '성'인 '민주화'를 외치게 된다면, 이는 다른 공간에 있되, 함께 하는 집합 의례가 된다. 홍콩인들은 홍콩 민주화의 성스러움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사회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홍콩을 넘어선 세계 사회가 창조적인 집합적 열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다.

## 6. 맺음말

본고는 2019년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의 전성기와 후속기를 뒤르캠과 뒤르캠주의의 의례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현재 홍콩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제한과 객관적 지표(가령 시위 참가자 수나 이민자 수)의 부재로 인한 자료 수집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상징과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의례이론적 접근은 폭력과 제도 정치의 역학에 대한 세세한 규명은 논외로 두는 취약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홍콩의 국제 정치적 위치 및 홍콩 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배제함으로써 홍콩 시위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는 2019년 홍콩 중심가를 가득 메웠던 시위참가자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제도정치적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내면에 남겨진 것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본고의 분석이 도출한 홍콩 시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영국과 중국을 각각 성과 속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진 홍콩인의 정체성으로 설명된다. 200만 홍콩인이 시위에 나온 2019년 6월의 시위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민주화의 열망을 담은 감정을 고조하였으며, 여기에 시위 전날 투신자살한 홍콩인을 추모하는 ‘속죄 의례’를 동시에 수행하며 더더욱 감정을 뜨겁게, 그리고 빠르게 고조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200만 홍콩인은 문턱을 넘어 리미널리티를 경험하고 그들을 기존 속세에서 누리던 지위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홍콩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평등한 홍콩인’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집합 열광은 2019년을 관통하여 지속되면서 11월의 구의원회 선거 승리에 도달했다.

2020년 보안법 시행 이후 집합 의례가 높은 수준으로 억압되는 상황에서 홍콩인들은 진화된 형식의 집합 의례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념의 의례를 통해 과거 집합 열광의 에너지를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으로 내면에 각인하고 영속화함으로써 단단하고 지속성 있는 사회 변혁의 동기를 조형해 낸다. 반면, 이주 홍콩인들은 세계 각지의 거리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속함으로써 다원적 거점으로 집합 의례를 확장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한 연결을 도모하며,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인들은 홍콩만의 민주화가 아닌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구현되어야 할 민주화의 가치로 그들이 숭배하는 ‘성’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

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홍콩의 성화가 세계의 성화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의례 이론을 통한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이전의 연구는 집합 행동에서 나타나는 집합 의례적 열광이 시위대의 결속과 문화 변동의 통로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사회운동의 집합 열광이 가져오는 '성스러운 세계'와의 조우는 단순히 열광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현실 그리고 집합 의례가 억압되는 상황이 뒤따를 때 의례 참여자의 내면의 힘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이 영속화된 형태이며 단순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변혁의 순간에 행위력을 창출하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집합 기억을 가진 이들은 집합 열광이 없는 순간에도 사회 변동의 잠재적 동인이며 변화의 경로를 끊임없이 노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본고는 성스러운 가치에 대한 숭배는 세계시민사회와의 조우를 통해 그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일반적 가치의 숭배로 진전되는 상향식 발전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집합 의례를 시작한 종교의례가 세계종교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상응한다. 세계로 의례의 참여자를 동원하게 되면 집합 의례는 공동체의 경계를 열고 집단으로의 진입장벽을 허물게 된다. 그와 같은 집합 의례는 더 이상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르는 결속이 아닌 세계 사회적 결속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544~~

## 참고문헌

- 김해인. 2019. “홍콩 시위 단상”. 『정세와노동』 제154호. 4-17.
- 뒤르켐, 에밀.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역. 서울: 민영사.
- 박선용. 1998a. “문화, 의례와 정치변동: 한국의 민주적 전환”. 『한국사회학』 제32집 봄호. 29-61.
- \_\_\_\_\_. 1998b. “뒤르켐주의 문화사회학-분류체제와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2집 겨울호. 905-931.
- \_\_\_\_\_. 2007. “의례와 사회운동 6월항쟁의 연행, 집합열광과 연대”. 『한국사회학』 제41집 1호. 26-56.
- 백원담 외. 2021. 『중국과 비중국 그리고 인터차이나』. 진인진.
- 손인주. 2020.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9(1). 1-29.
- 유영수. 2019.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시위와 중국의 대응: 배경과 전망”. 『EAI 논평』. 1-4.
- 윤영도. 2019. “홍콩 레논 벽과 포스트잇, 그리고 정동정치: 홍콩 우산혁명과 송환법 반대시위를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제46집. 107-130.
- 윤태희. 2021. “시진핑 시기 중국 당국의 홍콩 정책 연구 - 범죄자 송환법안 반대 시위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42호. 87-118.
- 이종화. 2018. “홍콩의 집단 기억과 시위 그리고 정체성 정치”. 『중소연구』 제42권 제3호. 157-189.
- 장정아. 2003.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 43-82.
- \_\_\_\_\_. 2008. “우리의 기억, 우리의 도시: 집단기억과 홍콩 정체성”. 『동북아문화연구』 제17집. 87-115.
- \_\_\_\_\_. 2016. “이 폐허를 응시하라: 홍콩 우산혁명과 그 이후의 갈등이 드러낸 것”. 『황해문화』 제92호. 23-85.
- \_\_\_\_\_. 2019. “모든 것이 정치다: 2019년 홍콩 시위의 기억과 유산”. 『황해문화』 제105호. 235-253.
- 최경준. 2019. “홍콩 시위와 민주화: ‘일국양제(一國兩制)’ 실험의 위기를 통한 민주주의 전환”. 『Jpi 정책포럼』 225. 1-26.

터너, 빅터. 2018.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 강대훈 역. 서울: 황소걸음.

Bellah, Robert. 1970. *Beyond Belief*. New York: Harpar&Row Publishers.

Marshall, Douglas. 2002. "Behavior, Belonging, and Belief: A Theory of Ritual Practice." *Sociological Theory*. 20(3). 360-380.

Misztal, Barbara A. 2003. "Durkheim on Collective Memory."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3(2). 123-143.

Olaveson, Tim. 2001. "Collective Effervescence and Communitas: Processual Models of Ritual and Society in Emile Durkheim and Victor Turner." *Dialectical Anthropology*. 26. 89-124.

Shills, Edward and Michael Young. 1953. "The Meaning of the Coron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1(2). 63-81.

St John, Graham. (Ed.). 2008. *Victor Turner and Contemporary Cultural Performance*.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Turner, Victor.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 <언론기사>

경향신문. 2020/08/15. "그들은 싸우기 위해 홍콩을 떠났다".

\_\_\_\_\_. 2020/12/06. "홍콩서 '1분에 5명씩' 영국여권 발급 ...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역대 최대".

뉴스1. 2019/08/25. "홍콩시위는 성조기·오성홍기·유니언잭 등 국기들의 전쟁".

서울신문. 2021/06/05. "홍콩 빅토리아 파크의 촛불 32년 만에 꺼졌지만".

시사IN. 2019/09/02. "97년생 홍콩 '반환둥이' 자유를 외치다".

\_\_\_\_\_. 2019/12/09. "홍콩, 오늘은 승리했지만 내일이 불안하다".

\_\_\_\_\_. 2020/07/17. "홍콩에서 들었던 가장 슬픈 말".

연합뉴스. 2021/05/28. "홍콩인 영국 비자 신청 두달간 3만4천여건 몰려".

\_\_\_\_\_. 2021/06/04. "'6·4철폐' 32년만에 처음으로 텅 빈 홍콩 빅토리아파크".

\_\_\_\_\_. 2021/06/13. “‘송환법 반대’ 기억조차 힘들어진 홍콩 … 일부 산발 시위만”.

\_\_\_\_\_. 2021/08/28. “‘기억하자’…홍콩 젊은이들 시위 상징 문신 시술 확산”.

주간조선. 2019/07/05. “그날 밤 홍콩은 분노의 섬이었다”.

중앙일보. 2019/07/22. “‘중국으로 변할까’ 우려에 홍콩 시위는 반복해 터진다”.

한겨레21. 2021/02/12. “[홍콩 보안법 7개월] 살아가기 위해, 국민 넘어 시민으로”.

DW Documentary. 2021/03/03. “Escape from Hong Kong to Britain - a life in exile”  
DW Documentary.”

Guardian News. 2019/09/15. “Hong Kong protesters sing ‘God Save The Queen’ in plea to Britain.”

KBS News. 2019/08/19. “검은 옷과 우산”.

\_\_\_\_\_. 2021/06/04. “‘6·4 천안문 32주년’ 중국 침묵·홍콩 억압·타이완 추모”.

SBS뉴스. 2019/09/01. “불타는 오성홍기 ‘시위 격화’…9월 분수령”.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06/17. “Historic protest in Hong Kong.”

\_\_\_\_\_. 2021/01/26. “BN(O) passport holders flee Hong Kong for new life in the UK, fearing Beijing’s tightening control.”

\_\_\_\_\_. 2021/06/11. “Hong Kong protests: police arrest student leaders over promotion of unauthorised gatherings for June 12 anniversary.”

\_\_\_\_\_. 2021/06/12. “Hong Kong protests: muted demonstrations, at least 4 arrested on anniversary of first major clash of 2019.”

The Straits Times. 2019/06/17. “Crowds of protesters demonstrating in Hong Kong on Sunday, June 16l.”

YTN뉴스. 2019/12/27. “2019년 가장 뜨거웠던 나라 1탄: 홍콩.”

<기타자료>

HKDC-Hong Kong Democracy Council. [hkdc\_us]. 2021/06/13. “The Hong Kong as we know it is dying, but the new Hong Kong is yet to be born.” [Tweet]. Retrieved from <[https://twitter.com/hkdc\\_us/status/1403767166621544455](https://twitter.com/hkdc_us/status/1403767166621544455)>

## Collective rituals after collective effervescence

A Durkheimian analysis of Hong Kong protests against the  
Extradition Law

Choi, Kyu Youn

Chung-Ang University DAAD-Center for German and European Studies,

Research professor

Park, Han Bi

Yonsei University BA student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2019-2020 Hong Kong protests from the perspective of Durkheimian ritual theories. What were the outcomes of the collective rituals practiced during the peak of the protests, and what remains of those outcomes after the protests were forcefully suppressed? Durkheim and Durkheimian ritual theories elaborate on the transformative energies emerging from the collective sentiments and solidarity building of social movements, drawing on the sacred-profane dichotomy, collective effervescence, liminality, and *communitas*. Employing these concepts, our study analyzes the ritual practices performed both at the peak of the Hong Kong protests in 2019 and the period of suppression which followed in 2020. This analysis particularly focuses on the legacies of the mass demonstrations in 2019, advancing understanding of the far-reaching outcomes of collective rituals. Our findings reveal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protests in June 2019 experienced intense collective effervescence centered on the sacred-profane dichotomies of Britain versus China and democracy versus socialism to reach liminality and develop *communitas*. In the subsequent period after the enactment of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 in 2020, the people of Hong Kong practiced commemorative rituals to perpetuate the memories of collective effervescence. Moreover, those who left Hong Kong to escape oppression continued to practice collective rituals in multiple locations around the world, expanding the sacred values of the Hong Kong protests as a part of the universal value of democracy. Based on this analysis, we argue that, when collective action is suppressed, transformative energy emerging from collective effervescence becomes embedded within those practicing collective rituals as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sacred’ which consolidates over time. This collective memory becomes a perpetual driver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collective effervescence, and through the entry into global civil society, evolves into the universal expansion of the sacred values held up by the collective rituals.

■ **Keywords:** Hong Kong, 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 Durkheim, Collective effervescence, Commemorative rituals

투고: 2021.8.30. 심사: 2021.10.12. 확정: 2021.11.4.